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small>뿐입니다</small>
담당 부서 글로벌도시기획과	배포일자 2023년 3월 20일(월) 총 2매	담당 자 • 글로벌협력팀장 한창현 ☎440-3481 • 담당자 곽초룡 ☎440-348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은 역시 인천” ... 유럽한인 다시 한 번 인천 지지
- 2023년 정기총회서 만장일치로 결정 -
- 지난 해 11월에 이은 두 번째 지지선언으로 인천 유치에 힘 보태 -

유럽 한인사회가 다시 한 번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지지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에 따르면 유럽한인총연합회는 지난 3월 18일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개최한 2023년 정기총회에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지지성명은 지난 해 11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독일 방문 중 이루어진 지지선언에 이은 두 번째 공식 지지로, 총회에 참석한 한인회장과 임원진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유럽한인총연합회는 1989년 조직되어 현재 유럽 26개국 90여개의 한인회를 대표하는 연합단체이다. 2020년 12월 기준 유럽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은 68만여명이다.

유럽한인총연합회는 이번 지지성명을 통해 ▲인천공항이 있는 접근 편의성, ▲재외동포와의 협력관계, ▲경제자유구역 등 재외동포 친화

적 환경 ▲재외동포청과의 업무협력 등 인천이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기에 가장 경쟁력있는 도시라며 구체적인 지지 이유를 밝혔다.

재외동포청 소재지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인천 설치를 염원하는 재외동포의 지지가 결집되고 있는 모습이다. 3월 중에만 홍콩, 대만, 라오스의 재외동포가 잇달아 인천 유치를 공식 지지한 데 이어 유럽 한인사회도 두 번째 지지선언을 통해 인천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유제헌 유럽한인총연합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어느 도시보다 앞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유럽한인총연합회에서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자.”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관련사진> ‘2023년 유럽한인총연합회 총회’ 사진

